

# 여천NCC 3공장 가동 중단, 지역상권 '침체 가속'

지역경제 위기 신호 급속 확산  
산단 상권 침체 심화, 근심증대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핵심 기업 여천NCC가 8월 8일부터 3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 여천NCC는 최근 누적된 적자와 부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3공장 가동 중단은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둔화, 환경규제 강화 등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위기를 상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3공장은 연간 약 47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며, 여수산단 전체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감소는 1·2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완할 계획이나,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은 불가피하다.

1999년 설립된 여천NCC는 국내 에틸렌 생산 3위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22년부터 중국발 저가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제 침체, 탈탄소 정책 영향으로 누적 적자가 9천억 원에 육박한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차입금 상환 압박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추가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논의가 지연되며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초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이후에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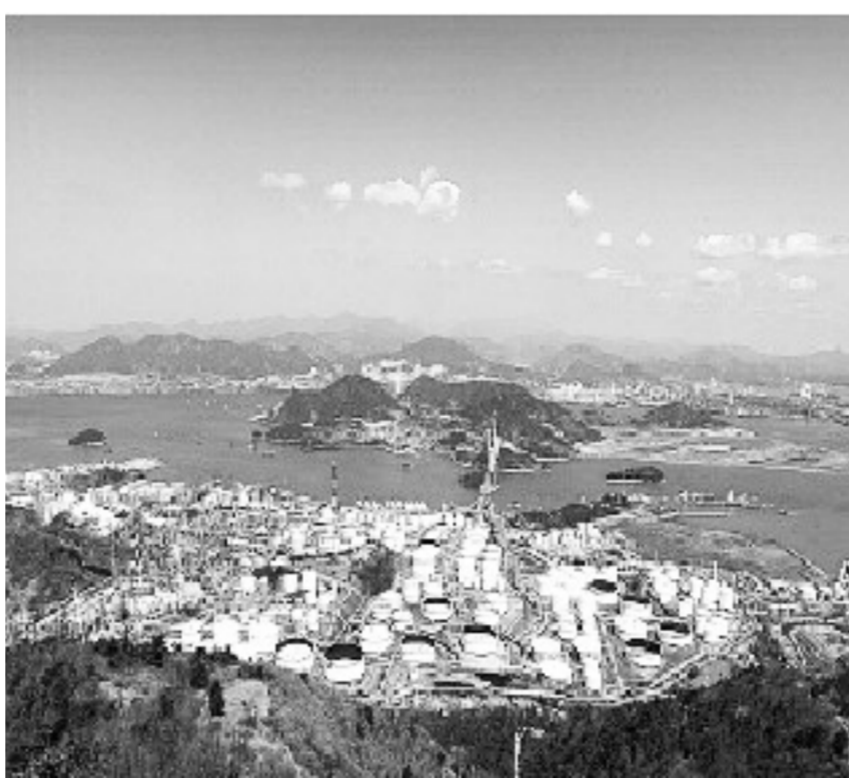
노동시장도 위태롭다. 3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촉탁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대적으로 해고됐으며, 정규직도 임시 휴직과 전환 배치 상태다.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회사에 촉구하고 있다.

산단 내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은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대량 해고로 인해 매출이 반 토막 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천NCC 3공장 가동 중단 이후 산단

인근 출퇴근 차량이 현저히 줄고, 공장 주변 주차장과 도로는 한산해졌다. 무선지구와 여수시청 인근 식당 등 지역 상권은 점심시간임에도 빈 테이블이 대부분이며, 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점들도 늘었다.

이처럼 지역 상권 전반에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회복과 금융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주주 간 갈등 해소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남아 있다. 금융당국도 법·제도적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기업 자구 노력 촉구 등 다각도 대응에 나섰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소유한 합작법인으로, 국내외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에 직면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 탈탄소 흐름과 중국 중심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여천NCC의 사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산과 설비 조정은 불가피했다.

여천NCC는 1공장과 2공장을 풀가동하며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반면, 3공장 생산 중단으로 고정부 절감과 손실 완화를 꾀하고 있다. 재가동

시점은 경기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결정할 방침이다.

여천산단 내 LG화학, 롯데케미칼 등도 일부 설비 철거 및 생산 조정에 나서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역시 경제적 충격과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 산단 내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매출 감소, 직원 가족들의 생계 부담 등이 확산되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크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안정망 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여천NCC 3공장 가동 중단이 단순 감산을 넘어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체질 개선과 친환경 기술 도입,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난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여천NCC 조치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신호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중국산 저가 물량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 설비 조정과 산업 혁신 요구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최창덕·고홍석기자

## 광주시의회 미래차 산단 동의안 처리

의회, 타당성 우려 공식 제기  
집행부, 실행력·보완책 강조

광주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부족 우려가 제기됐으나 광주시는 조성원가 공급과 미분양 용지의 직접 매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의원들은 분양가 경쟁력, 신도시 공동화 위험, 산업용지 비효율 확대 필요성, 에너지 자립형(RE100) 산단 추진 등 정책적·산업전략적 보완점을 언급했고, 이에 시 관계자는 주변 산단 분양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면 조성원가로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용역을 통해 산업용지

확보 및 신도시 배분 등 세부 사업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자율주행, 전기차, AI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해당 산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해당 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산단 내에는 연구개발, 생산, 실증에 이르는 산업 연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30만평 규모 신도시도 함께 조성해 첨단 인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거점 마련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고홍석기자

## 이순신대교서 트레일러, 공사차량 추돌

신호수 2명 현장에서 사망  
음향설비 작업 중 사고 발생

광양 이순신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갯길에 정차 중이던 공사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숨졌다.

5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양시 태인동 이순신대교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교량 비상 방송시설 보수를 위해 갯길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앞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40대 남성 2

명을 덮쳤고, 이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음향 시설 설치와 마치고 장비 철수를 준비 중이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물을 마시다가 갯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를 하던 신호수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 여부와 과속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고홍석기자



/광주시

지난 8월 28일, 광주시는 자치구 및 건축안전전문단과 함께 화재 피해로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려반 해체현장을 기획점검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달 재가동...생산량 하루 1천~4천본

화재 5개월 만에 공장 재가동  
내년 연간 200만본 생산 목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 발생 5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한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10월부터 피해가 없었던 1공장 전체와 2공장의 검사·출하 공정 구간을 활용해 타이어 생산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규모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 이후 약 5개월 만에 공장 내부 시스템과 인력 재배치, 설비 보완 등 복구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다.

이번 재가동은 1공장과 2공장의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초기 단계에서는 하루 1천 본 정도의 타이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연내에 일일 생산량을 4천 본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하루 6천 본, 연간 200만 본 생산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 개선과 설비 확충이 완료되면 하루 1만 본까지도 생

산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 전 2공장에서는 하루 3만3천 본

안팎의 타이어가 만들어졌던 만큼, 금호타이어는 단계적 복구와 공정 정상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과거 생산량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반제품을 만드는 설비를 새롭게 추가해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1공장은 기존의 성형 공정과 가류 공정에 더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무를 활용해 타이어 생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출하 공정 역시 2공장 내 불에 타지 않은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며, 정련 공정이 모두 소실된 관계로 곡성공장 등 외부 공장에서 고무 수급해 연동 생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관리, 위험 요소 사전 점검 등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시휴직 중이던 광주공장 노동자

들도 재가동 일정에 맞춰 순환근무 형태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안정성뿐 아니라 임직원 고용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7월 1공장 일 6천 본 생산 체제 연내 구축, 2027년 말까지 합평 빛그린산단 내 신공장 건설 및 2028년 가동, 광주공장 부지 매각 시 1공장 합평 이전 및 2단계 공장 건설 추진, 구성원 고용 보장 등 큰 틀의 합의도 이뤄냈다.

향후 생산량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면 연내 일일 4천 본보다 더 많은 타이어를 제조할 수 있다”며 “노사와 협의해 필요한 인력 배치와 고용 안정,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가동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역 산업계의 신뢰 회복과 함께 향후 성장기 성장과 안정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창덕기자

##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으로 우정 다져

광주시는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간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11일 5·18광주민주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달빛동맹 교류행사의 하나로, 양 도시 여성단체가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여성정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 행사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이영숙 회장과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이종선 회장, 활동가 등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교류행사는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열린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 환영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밤심천심'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동참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다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요지 아케다'의 개인전을 관람하며 현대예술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스포츠·예술·시민참여 캠페인을 아우르며, 양 도시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나누는 동시에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며 도시 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여성의 연대와 협력은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광주와 대구가 함께 미래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단체는 지난 6월 대구에서 상반기 교류를 진행하는 등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여성단체 간 교류와 연대를 적극 지원하고,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기자

## 한중일 전문가들 배터리 접합 문제 신기술 교류·협력

광주시는 8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2025 현대태양 EV 배터리 접합기술 국제포럼'을 열고 한·중·일 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융점접합공업협회 주관, 광주시·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국제 기술교류와 산학연 협력의 장이 됐다.

광주시는 2024~2028년 총 186억 원을 투입해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평등 트리아아웃센터 리모텔링으로 지원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장비 도입, 기업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병행된다.

포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산업 적용 과제, 글로벌 공동연구 전략이 집중 논의됐으며, 해외 석학과 국내 삼성SDI 등도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주도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 기술 주도권 강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고홍석기자